

연중 제 18주일

제 1독서 : 이사 5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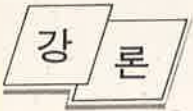
제 2독서 : 로마 8, 35, 37-39

복 음 : 마태 14, 13-21

# 순정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로마 8, 37).



## 먹을 것을 주어라



김영신 신부 / 금암 천주교회

오늘 복음 말씀 중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 말씀은 소량의 음식이지만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주의 기적이 일어남을 일깨워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능력을 서로 나누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룸으로  
세상에서 언제나 성체성사의 기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각기 마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대로 나눠 먹도록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 교황 바오로 6세  
께서는 복음선포가 교회의 일차적 임무이긴 하지만  
먹을 것 없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회적 책무도  
강조하셨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는 이 기적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이며 세상 마칠  
때까지 외쳐야 할 주님의 메시지임을 상기시키셨습니  
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빵을 실컷 먹고  
열두 광주리나 남았다는 복음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작은 것을 나누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합니  
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눌 것이 정말  
없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못 나누게 방해하는지  
깊이 반성해봅시다.

주께서는 빵과 물고기와 같은 물질적 음식이나 경  
제적 나눔만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난 재주와 능력을 나누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이웃 형제와 함께 나누며 병자를 방문  
하여 이웃 형제가 집 수리할 때 같이 도와주고 이사할  
때나 이사를 때 그 가정을 방문하여 형제애를 나누고  
초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들봐주는 등 시간을 잘 활  
용하고 능력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

이 서로 나눔의 공동체이며 서로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이웃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  
리의 보잘것없는 희생이나 노력이나 신앙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기적을 이뤄주십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기적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십니다. 당신이 자비  
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어 만져주시고 치  
유해주시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 제자들에게 아  
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체성사의 한없는 은총을 거  
룩한 미사를 통해 담뱃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나눔의 기적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기적을 보여줘야겠다.



# 휴가 연대기

신광연(가브리엘)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세속의 골치 아픈 모든 것을 미련없이 내팽개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는 휴가처럼 즐거운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친구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고 가족끼리라면 더욱 좋다. 모두 합치면 더더욱 좋겠지. 아무리 경치가 좋해도 정담을 나눌 상대가 없으면 허전할터이니까.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은 하늘을 나는 느낌이요 다정한 빛과 주고받는 술잔에 취흥이 오르면 세상은 온통 장미빛이다.

소년시절 나의 휴가는 산과 바다가 있는 고향과 \*선고와 형제, 죽마고우 C군이 모자이크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국민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해수욕장을 윗형과 함께 갔었다. 그때 낮에 보았던 질푸른 바다도 아름다웠지만 잠결에 귓전을 때리던 파도의 철석임은 어머니의 자장가와도 같았다.

6.25를 전후했던 중학시절은 건너 뛰기로 하고 고교 2학년 여름방학에는 \*선고와 C군 그리고 아우와 일행이 되어 월명암에서 2박3일을 보냈다. 해발 400m쯤의 낮은 산정이건만 바닷가여서인지 낮에도 초가을 날씨인 양 삼삼한 느낌이었다. 이른 새벽 내변산 골짜기에 드리워진 구름바다는 그 안에 안기고 싶을 만큼 포근하게 보였다. 산사의 열무김치와 보리밥도 진수성찬 못지 않은 별미였고.

성장하여 K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10여년간 여름철 휴가 때면 울망줄망인 아이들과 함께 산이나 바다를 찾아 조출하나마 단란한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80년 여름 휴가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런 해직 통보를 받으면서부터는 7년여의 휴가 아닌 휴가 복이 터졌다. 직장일에 쫓길 때는 며칠 좀 쉰 거였으면 할 때도 많았건만 막상 실직자가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지루하기 이를데 없었다. 한참 일할 나이에 멀쩡한 육신을 갖고 하릴없이 빈둥거리야 하는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전해에 아내의 권유-결혼 후 10여년간 계속 받아온-에 따라 예비자가 되어 1년 만에 주님을 영접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내가 괴로워할 때 아내는 용기를 읽어보라고 했다. 이 성서를 통해 나는 큰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을 빼앗으셨던 주님은 모든 것을 잃고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은

용에게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시지 않았던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언젠가는 기쁜 날이 오겠거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겠거니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매달렸다.

고진감래라는 옛말처럼 7년 만에 옛 직장에 복귀한 것을 두고 교우들은 성모님이 보살펴주셨다고 축하해줬다. 나는 다시 실직 전에 가졌던 것을 모두 되찾고 옛날처럼 여름철이면 진짜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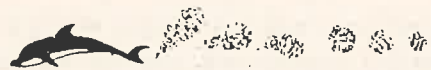
복직 후 2-3년간은 중고생이 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함께하기도 했으나 그 뒤로는 머리가 굵어지면서 동행을 꺼려해 아내와 친척들과 어울리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지난 봄에 장가든 큰놈이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신고도 없이 며느리와 함께 휴가를 떠나면서 기차역에서 전화를 걸었다며 아내는 못내 섭섭해 했다. 또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도 제 나름의 휴가를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터이다.

얼마 후면 또 여름 휴가를 맞게 된다.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다 자란 아이들이 동행해주지 않는다 해도 아내와 함께 휴가를 설계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맞게 될 영원한 휴가도 지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런지, 함께 떠나지는 못하겠지만 다정했던 벗들과 혈육들을 만나 옛 얘기를 나눌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선고 : 돌아가신 아버지



##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 농부와 해수욕장



김신옥(라파엘)/마포 공소

안개가 산마루에 걸쳐 마치 한쪽의 산수화를 바라보는듯, 변산·고사포·격포해수욕장이 줄지어 시원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을 지나 담장의 집시꽃이 청초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마포 공소에 도착하여 전 공소회장인 김신옥(라파엘·65세) 형제를 만났다.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그는 전남 흑산도가 고향으로, 부인 박기금(마리아·64세)과 3남3녀를 자녀로 둔 순박한 농부이다.

그는 고향에서부터 신앙에 열심하여 공소회장, 전 교회장 등을 하면서 하느님 백성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다. 이곳에 와서도 공소예절을 진행시키고 강론도 하며 마을 사람 100여명을 영세 받도록 이끌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중 젊은이들과 글을 아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고 지금은 노인들만이 남아 이 공소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지난 2년 동안 공소회장으로서 열성을 갖고 봉사했다.

두 분의 생활은 작은 논마지기과 밭, 그나마 몸이 약한 그에게는 힘겨운 때가 가끔씩 있어 도시로 나가 있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때도 있다. 여름철만 되면 도시 대학생들이 농촌을 도와준다고 올 때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곤 한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 퇴약별

아래에서 밭을 일구다 허리를 펴 고개를 드노라면 줄지어 지나가는 도시의 사람들, 더위를 피하려 해수욕장을 찾아 모여드는 그들을 바라볼 때 웬지 눈시울이 앞을 가리고 속상한 마음, 소외당한 듯한 심정으로 괜히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다.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농촌에 와서 일할 사람은 어찌 이리도 없는가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희망보다는 포기가 앞서고 그전에 가졌던 원망스러움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하고 무관심해지는 그였다. 지금은 덤덤한 심정으로 피서객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허리 굽혀 땅을 일군다.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은 가까운 곳에 새만금 간척공사가 한창인데 이것이 잘되어 젊은이들이 이 고장에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평생 땅을 사랑하며 살아온 그,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돌아나듯 지나쳐 가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 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싹이 언젠가 돌아날 것을 믿는다.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는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마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린다.

신자들의 소리

## 피서 떠난다고 주님까지 떠나셔야

한상섭(정하상 바오로)/떡진 성당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씨에 모두가 쉽게 짜증내기 쉬운 계절이다. 그러나 여름은 휴가가 있기 때문에 또한 모두가 기다려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가족, 친구, 연인들은 미리부터 계획과 망설임으로 더위를 피해 피서를 떠날 준비로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여름의 피서는 더위로 인한 무료함을 달래주는 휴식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가족, 친구, 연인들이 그동안의 회포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자리이고 또한 생활의 재충력소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름철 휴가로 인해 신앙인의 자세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계절이다. 주말에 피서를 떠남으로써 주일미사에 빠지는 경우, 피서지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신앙인의 마음자세 등 우리에게서 여름철 휴가로 인하여 잘못하면 신앙인의 자세를 흐뜨리기 쉬운 것들이 요소소소에 뿌리박혀 있다. 우리는 천주교 가족이다. 피서지에서도 항상 우리 곁에는 하느님이 계신다. 잠시 망각하기 쉬운

계절일수록 더욱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천주교인이라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된다.

작년 여름에 나도 주말을 이용해 알찬 계획과 희망 속에 피서를 떠났다. 오랜만에 가지는 휴가이기 때문에 모든 잡념들을 버리고 편안한 휴식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피서지의 복잡거림은 그동안 기대했던 광경은 아니었다. 더욱 머리가 복잡함을 느꼈다. 괜히 피서를 왔구나 하는 후회감마저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서까지도 그리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아마 나뿐 아니라 피서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번쯤은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우리는 여름의 피서가 더위과 무력함을 달래주는 휴식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다가오는 휴가 그리고 산과 바다로 떠나는 피서, 울여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잠시 묵상에 빠진다.

특 집

# 주일과



고백성사를 주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죄목은 주일날 미사에 빠졌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웬지 요즈음 신자들은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시대의 싸늘한 무신앙이 어느새 우리 안에도 만연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하느님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볼 일이다.

요즈음 방학이다 휴가다 해서 자칫하면 주일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신앙은 휴가가 있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느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 그래서 이병호에는 주일의 의미와 유래 등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정리해본다.

**\*주일의 의미**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란 뜻이며, 이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어 우리에게 참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일날 주의 구원사역을 재현하는 미사성제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수난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거룩히 지내야 한다(전례헌정 5장 106항).

성서에는 주일을 신자들의 '집회의 날'로 기록하고 있다. 곧 신자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빵을 나누며 성찬례를 거행했다(사도행전 2장, 4장).

**\*주일의 유래**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경신 예배와 빵 나눔인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 위해 안식일 다음날 즉 '주간 첫날'에 함께 모였다(사도 20, 7; 요한 20, 19).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구약의 안식일 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간 첫날을 그들의 축제일로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신강림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일을 일요일(태양의 날)로 부르게 된 것은 그리스도교로 귀화한 게르만 계통의 태양신 숭배사상에서 사용하던 말로 일요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태양이시라는 사상과 결부되어 그리스도교에서 축제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건(부활)을 빠스카 축제 때만 정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지낼 수 없으므로 교회는 7일을 1주기로 채택하여 부활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이다.

**\*토요 특전(特典)미사**

주일의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가진 신자들이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된 토요일의 저녁미사를 '토요 특전미사 혹은 특전미사'라고 한다. 교회가 이 특전미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산업사회 속에서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바쁜 일상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주일미사를 더 잘 참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있으며, 신앙인의 삶이란 바로 영혼의 음식인 성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주간을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전주 하리스포츠**  
 자갈텐트, 등산용품, 낚시  
 운동기구  
 (20~40% 할인 판매)  
 송혜리(살로메)  
 판동로 통신공사 건너편  
 ☎ 84-2941, 88-1960

혼수 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깨끗한복·각종 이불 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84-7294

인쇄의 모든 것  
**에벤 정판사**  
 안진(미카엘)  
 풍남동 동문 사거리  
 ☎ (0652) 84-2972

**대림 카 세차장**  
 세차, 오일교환, 특수코팅, 광택,  
 차량 상호 도색(전제품 3M 수입품)  
 정육식(베드로) 오병호(아벨)  
 군산 소룡동 성당 입구  
 ☎ (0654) 62-9952

# 신앙생활

가르쳐주는 배려라는 점을 명심하여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송(代誦)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는 7살 이상이면 누구나 천주 십계 중 제 3계명과 교회법의 정신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모여 하느님께 지난 한주간 동안의 삶에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최대의 예배인 미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병자 간호, 특수 근무, 특별한 가정의 큰일 등) 도저히 주일미사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주일미사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도인 대송을 바쳐야 한다. 대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소 예절(가톨릭 기도서 107면)
- 주의 기도 33번
- 십자가의 길 1번

### \*주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요, 온 세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요,  
 온 세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사업에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날로,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사업에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특히 미사성제에서 우리 속죄의 구원사업이 수행되고 있고, 전례는 모든 교회 활동의 정점이며 모든 힘의 원천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전례헌장 2장 10항). 교회의 공적인 예배행위인 전례, 특히 미사성제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흠송행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본당신부들은 신자들이 주일날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벽부터 가능한 한 미사 횟수를 늘려서 봉헌한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미사만은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 만일 부득이한 일로 주일날 미사를 쫓을 경우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일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리고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죄를 범한다는 소극적인 태도 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사에 참여해야겠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살기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말을 즐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휴식과 향락에 기울어 주일미사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기쁨과 축제의 날이고, 신앙인이 주일의 축제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요심이 (1040) 김병오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대리점>**  
 • 샴피랑 : 온몸,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세, 맑은샘)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커텐장식 · 혼수이불 · 홈패션  
**천 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 대 원(프란치스코)  
 박 해 순(헬 레 나)  
 윤정미 상담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도)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산 농 서 실**  
 고 영 선(마 태 오)  
 송 춘 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 ↔ 병부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할 티 생 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플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탄산수**  
 전주 · 이리 · 군산 · 김제 · 부안지역 배달  
 전화 : (0652) 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권이복  
 ※ 수익금은 가톨릭 농민회 생명공동체  
 운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뿌리를 찾아서

# 장수 성당

—순교자의 뉘이 살아 있는 공동체—



일찍이 1850년부터 최양업(토마) 신부의 활약 무대였던 전라도 장수는 병인박해(1866년) 때 모여든 팔도의 피난교우가 교우촌을 형성하여 살았던 곳이다.

전라도와 경상도 쪽으로 전교하는 중심지역이 되었던 장계 성당에서 1977년 7월 20일 분리, 본당으로 설정된 장수 성당은 성요셉(3월19일)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초대 왕수해(세자 요한) 신부를 비롯하여 현재 제5대 김영태(토마) 신부가 장수군 장수읍과 번암면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사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郡) 소재지이면서도 본당 설치가 끊겼던 장수에 1973년 2월에 당시 장계 성당 주임인 김병운(베네딕도)

신부가 현 위치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 대지를 매입, 그해 9월에 강당을 건립하였으며 이를 성취시킨 것은 현재 전동 성당 주임인 김봉희(세자 요한) 신부(당시 장계 성당 주임)이다.

그즈음 장계 성당은 본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장계지역과 장수지역을 분리, 별도 운영하여 1977년 5월에 사제관을 신축함으로써 1977년 7월 9일 새로이 장수 성당을 창설하게 되었다.

현재 교적상의 신자수는 1,054명에 이르고 있으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가 날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재정적,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 신자중 60% 이상이 공소에 산

재하여 있음으로 인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로 사목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신자들의 영성교육 등 특히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수녀원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러 교구에 수녀원 신축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본당신자 및 공소신자들의 일치된 마음과 자체 모금으로 수녀원 신축 공사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994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오늘도 순교자의 뉘이 살아 있는 뿌리 깊은 고장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본당 공동체의 신앙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명상의 자리

## 사랑은...

사랑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염려도, 신뢰도 아니며 그의 필요성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애타는 그리움도 열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평온함이고 자연스러움입니다.  
사랑은 새벽동이 트듯 슬며시 터와 온몸을 환하게 하고 모두에게 그곳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둠이 아니고  
사랑은 저녁별도 아니며  
사랑은 새벽동이고  
사랑은 빛이고  
사랑은 머무는 공기입니다.  
어디에도 스며 있는  
그리고 전혀 느낄 수 없으면서도  
늘 함께 있는 공기입니다.  
주님!  
사랑은 당신이십니다.

###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비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 변원구 한의원

변 원 구(예로니모)  
허 정 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 옆

☎ 252-1783

253-6355~6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 남문 노트사

원 수 관(야고보)  
심 경 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방송캠프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테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 교 소 식

❖ 교구청 여름 휴가

- 때 : 8월2일-7일
- 각 본당에서는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빛두레 신앙인 학교

- 때 : 8월2일(월) 오후7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강사 : 문규현 신부
- 주제 : 민족 복음화와 교회

❖ M.B.W. 연수

- 때 : 8월2일-5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여성 43차 꾸르실료

- 때 : 8월5일-8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제11차 전주 선택 주말

- 때 : 8월20일-22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대상 : 미혼 젊은이
- 회비 : 40,000원
- 문의 : 가톨릭센터 안내실 85-0041

❖ 성모의 기사회

- 때 : 8월7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푸른군대 피정

- 때 : 8월5일(목) 오전10시
- 곳 : 덕진 성당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8월16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벤지
- 내용 : 우리의 영웅 벤지가 어느 날 항해중에 폭풍우에 휩쓸려 북아메리카의 해변에 표류된다. 그곳 삼림지대를 헤매던 벤지는 우연히 어미를 잃은 세 마리의 새끼 퓨마를 발견하고 이들의 보호자가 되나 도처에 도사린 인간과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 회비 : 1,000원

**성소모임**

❖ 사랑의 새튼수녀회(대피정)

- 때 : 8월12일 오후5시-15일
- 곳 : 광주 본원
- (062)571-3004

❖ 성모승천봉헌자수녀회(대피정)

- 때 : 8월27일 오후2시-29일 오후4시
- 곳 : 광주 본원 (062)371-0172

❖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때 : 8월8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842-4132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8월8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 동정성모회

- 때 : 수시로 성소 상담
- 문의 : (0652)222-5269

❖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 때 : 수시로 성소 상담
- 문의 : (062)529-0041

■ 권해드리는 책 ■

· 바람을 삼킨 풀잎

옥순원 지음 / 2,500원

“너울너울 춤추며 다가오는 바람 아저씨가 들려주는 신기한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이지요.”  
여름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에게 싱그러운 꿈을 심어주는 창작 동화집.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환경 실천 사항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와 버리기 전에 이것을 다시 쓸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쓰레기 공해에 미치는 문제를 철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자신이 쓰레기를 버리는 양을 줄이고, 버리기 전에 가능한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해보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분리하여 재생공장에 보내고, 지나친 과대 포장을 삼가하는 것에서부터 환경 보호 운동을 시작합시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실천해나간다면 쓰레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순교와 증거의 발자취**

- 성지순례 안내서 -

한국천주교회의 60여개 주요 성지 및 사적지를 순교자 행적을 중심으로 교구별로 자세하게 해설하여 순례 때마다 낭독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으며, 순례 여정과 순례 예식, 미사경문, 기도문, 성가 등을 첨부하였다.  
· 가격 : 2,500원  
· 믿는이의 편지 (02)756-7471

**성바로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 카세트테이프 · 비디오  
슬라이드 · CD · 성물 등  
중앙 성당 옆  
☎ (0652) 252-3398

**여주 라피엘의 집  
직원 모집**

본 시설은 중복 장애 맹인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물리치료사(자격증 소지자)  
2. 생활지도교사(교육학 전공자 및 교직과목 이수자,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3. 문의 : (0337) 83-663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 때 : 8.21(토) 후4시-22(일) 후4시
- 곳 : 부산 수녀원 피정의 집
- 대상 :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구, 세면도구, 회비 5천원
- 신청 : (051)514-1773, 8월15일까지

**특별 강연**

주제 : 성공적인 삶의 비결  
일시 : 8월12일(목),  
8월16일(월)  
오후 2시 및 7시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연사 :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주최 : 한국정신과학연구회  
참가비 : 2,000원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초등부 신앙학교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오늘은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 1. 복사단 소풍: 4일, 성북해수욕장, 새벽미사(저녁미사 없음)
- 2. 성시간: 5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6일,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상임: 6일, 저녁미사 후,
- 5. 금주 모임: ① 울뜨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 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③ 만회장(5일 전 10시30분)
- 차주 모임: ① 꾸리아-천사의 모후(8일 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8일 후 2시) ② 장우희(8일 장엄미사 후) ③ 부녀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④ 대견회(15일 장엄미사 후), 6. 금주 청소년: 중노 12, 13번, 차주 장소: 중노 14, 15번,
- 7. 달력: 노송신협수회 밥 10시까지 영업.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 1. 초등부 여탐 신앙학교,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성체감복: 5일 저녁미사 후, 회비 5,000)
- 3. 청년회 하계수련회: 일시-8월2~4일, 장소-지리산 천왕봉
- 4. 회합: ① 대견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 구역분과회(3일 오전 10시) ④ 울뜨레아(3일 저녁미사 후) ⑤ 자모회(5일 오전 10시) ⑥ 여성분과회(7일 오전 10시) ⑦ 요셉회(8일 공식미사 후) ⑧ 꾸리아(8일 오후 2시) ⑨ 청년회(8일 저녁미사 후) ⑩ 해설자모임(8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조옥애, 독서-박홍철 씨 부부  
봉헌-조종업 씨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유만수 씨 부부  
봉헌-손승환 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욱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 2. 모임: ①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7일(토) ③ 성체감복(성시간)-5일(목) ④ 요셉회, 안나회-다음주일,
- 3. 감사: ① 초·중·고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사목회-5만원, 김금자-3만원, 2차헌당-16만1천원, 성모회-닭15마리, 게-24만1천원, 누계-87만9천원, ② 제대꽃-김영신, 강베로니카-각 3만원,
- 4. 야외 울뜨레아: 4일(수) 해남 대흥사, 목포
- 5. 첫영성체 교리: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국교 3학년 이상)
- 6.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 강력용 ② 이춘봉  
봉헌-하태중 씨 부부 \* 요셉회, 안나회 야유회: 5일(목)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연중 제 18주일!
- 1. 꾸리아: 8월1일(오늘) 오후 2시,
- 2. 사목회: 8월4일(수) 오후 8시(시간 엄수바람)
- 3. 자모회: 8월4일(수) 오전 10시30분,
- 4. 프란치스코 3회: 8월8일(다음주일) 오후 2시,
- 5. 성심회: 8월13일(금) 오후 2시,
- 6. 사무장 하계 휴가: 8월9일(월)~8월14일(토) 오전까지.  
※ 사무장 휴가기간 동안은 사무보지 않음(착오 없으시기 바람)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연중 제 18주일
- 1. 초박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2. 여름 신앙학교, 부사히 마치고도록 수고하신 교리교사 여러분, 1일 교장으로 수고하신 형제,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 3.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
- 4. 봉성체: 7일(접수바람)  
청소년봉사: 5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707,100원 □ 교무금: 1,54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 청소년 캠프에 들심양면으로 협조하여주시던 제단체, 개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 금주: ① 재속클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 요셉회 야유회(공식미사 후) 2. 복사단 들놀이: 3일(화) 오전 9시 출발 3. 빼어따회: 4일 오전 11시, 4. 명화 상영: 4일 저녁미사 후 "애수" 5. 성체감복 및 조배: 5일 오전 10시, 6. 성모성심회: 5일 오후 3시, 7. 여성 43차 꾸르실로 참가: 8월5일-8일: 최경원(철마), 조점옥(마리아) 8. 병자 봉성체: 6일 오후 2시, 9. 차주: ① 자모회(오전 10시) ② 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 사목회(후 8시) 10. 감사합니다: 잔디 췌는 기계(삼십만원) 봉헌-장욱자(루서야)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 1. 성시간, 성체감복: 5일 저녁 7시30분, 청영은 하느님 사랑,
- 2. 꾸르실로 여성 43차 강습회: 5일~8일 안영, 김금순, 허성화, 박성자 자매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3. M.B.W: 2일~5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선착순 접수,
- 4. 구역 반회장 연수회: 3일 전 10시30분 여름수련회 준비,
- 5. 유아세례: 7일 후 2시30분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6. 초등부(유치부 1, 2, 3학년) 들놀이: 2일 전 9시 출발,
- 7. 청년회 하계 캠프: 7~8일, 장소: 대아리 옷보에서,
- 8. 남성 L.M 정의의 거울Pr 설립: 단장-박해근, 부단장-심성택, 서기-김윤곤, 9. 회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제단체장 회의-공식미사 후, 부녀회-4일, 10. 가정 축성미사: 3일 저녁 8시 강남 2동 805호 김완철 형제 대,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범 갑

- 1. 성모회, 울뜨레아: 오늘 미사 후,
- 2. 사목회: 오늘 오후 8시,
- 3. 구역장 월례회: 3일(화) 오후 8시30분,
- 4. 전례지회: 4일(수) 오후 8시30분,
- 5.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 6. 초등부 여탐 신앙학교를 마치면서 감사드립니다.
- 7. 교리교사 피정: 9일(월)에서 11일(수)까지,  
금주 전례: 강희연, 박순옥, 독서-봉헌-김정숙, 윤경모  
차주 전례: 정준성, 김경숙, 독서-봉헌-송미옥, 방경근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연중 제 18주일입니다.
- 1. 구역봉사자: 8월4일(수) 오전 10시30분
- 2. 신영세자(7월4일) 첫고백: 8월5일(목) 저녁미사 전후에 있습니다.
- 3. 성모 기사회: 8월7일(토) 10시30분
- 4. 환자 봉성체: 8월10일(화) 오후 2시부터,
- 5. 감사: 초중고 여탐 성경학교 및 캠프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불철지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선생님들과 자모회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6. 청년성가대, 어머니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7. 미사안내: 금주-성도들의 모후, 모든성인, 차주-원죄없으신, 파타마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 1. 모임안내: ①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회-6일(금) 10시미사 후 ③ 복사단 단합대회-3일(화) 오전 8시,
- 2. 성체감복: 5일(목) 10시미사 후,
- 3. 예비자 특별교리: 8월9일~13일,
- 4. 봉성체: 5일(목)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5. 주일학교 미사와 교리반학: 8월 1주~4주,
- 6. 축! 꾸르실로 스타탄생: 김일수(요셉)  
차주 모임: 울뜨레아, 기우회, 빈첸시오회, 자모, 성모, 성심회,  
금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 정원희 ② 이민희  
봉헌안내-김춘성 부부, 김호선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한은 5,000원
- 7. 성지순례: 9월12일, 갈매꽃, 회비-성인 7,000원, 초중고등부